

### 모든 역경에 대한 해결책은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것이다.

밥다다는 눈의 언어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 세상 너머로 가서 서틀 리전의 주민이 되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서틀 리전의 주민인 밥다다는 그와 같아지는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다. 천사들의 나라에 머물면서 이 물질세계에는 그저 행위를 행하려고만 들어와라. 끊임없이 카르마 요기로서 행위를 행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천사가 되어라. 천사들의 나라에 사는 아비약트 천사의 모습임을 항상 의식하며 지내라. 너희는 땅 위에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천사란 이 악덕의 세계 너머에 있는 자라는 뜻뿐 아니라 악덕의 시선과 태도를 초월한 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천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있다. 천사는 변함없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양쪽 다 서로에 대한 사랑에 한결같이 잠겨 있다. 너희들은 그런 천사가 되었느냐? 아버지는 초연한 상태로 머물며 그의 과업을 행하기 위해서만 강림한다. 마찬가지로 천사 영혼인 너희도 각자 카르마의 잔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에 대한 너희의 ‘굴레’ 때문에 행위를 행하려고 몸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언제든 너희가 원할 때마다 초연해진다. 너희는 이 정도로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느냐? 이것이 천사가 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속하면 그때는 너희의 낡은 몸과 낡은 세상의 굴레가 전부 다 끝난다. 그래서 이번 생을 너희가 산 채 죽은 생이라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과거 낡은 빛은 정리되었고, 너희는 새로운 브라민 생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 이번 생이 너희가 산 채 죽은 생이라는 것을 너희들 모두 이해하지? 너희들은 산 채 죽었느냐, 아니면 아직 살아서 죽어가는 중이냐?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미 그렇게 되었느냐, 아직 그렇게 되고 있느냐? 너희는 아직 죽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죽었느냐? 너희가 죽으면 너희들의 과거 계좌는 모두 정리된다. 브라민 생은 카르마의 굴레의 삶이 아니고, 카르마 요기의 삶이다. 너희가 주인으로서 행위를 행하면 그 행위들은 카르마의 굴레가 아니다. 너희는 신체감각들의 주인이므로 원하는 어떤 행위든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너희는 그 행위를 행하는 데 신체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브라민이라 함은 천사가 된다는 뜻이다. 카르마의 굴레를 가진 영혼이라는 뜻이 아니라, 봉사의 순수한 굴레를 지닌 영혼이라는 뜻이다. 너희들은 봉사를 위해 현재의 몸을 받았다. 카르마의 굴레의 삶에서의 빛은 이제 끝났다. 이번 생은 새로운 생이다. 너희 모두 이것을 이해하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과거의 빛은 없지? 마하라시트라 출신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선생인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너희는 빛을 잘 청산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게으르냐? 빛을 청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 천사가 되면 너희는 노력해야 하는 데서 해방될 것이다. 날아다니는 자들은 걷거나 높이뛰기를 하는 자들보다 더 빠를 테니 그들은 노력하는 데서 해방될 것이다. 영원한 형태에서 너희는 날아다니는 자들이다. 영혼은 날아다니는 새들이지, 걸어다니는 새가 아니다. 너희들은 각자의 짐무게 때문에 너희의 영원한 산스카르를 잊었고 이런 이유로 천사가 되지 못한 채 각자의 카르마의 굴레에 묶였다. 날아다니는 새가 되지 못하고 새장에 갇힌 새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의 영원한, 날아다니는 새의 산스카르가 다시 한 번 나왔다. 이 말은 너희들이 천사의 모습에 너희 자신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대등해지는 축복을 차지해라. 이것이 쉬운 노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갖가지 역경에 대해 애쓰며 뭘 할 수 있을까, 어찌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의아해하면 그럴 때 상황은 더 커지고 너희는 작아진다. 상황은 강력해지고 너희는 약해진다. 어떤 상황에서든, 즉 그것이 자연과 관련된 일이든, 너희 몸과 연관된 것, 또는 육신이나 영적인 관계에 토대를 둔 것, 혹은 너희 자신의 산스카르나 남들의 산스카르 때문이든, 역경에서 그 모든 “어떻게?” 와 “어째서?”라는 의문을 해소하는 답은 단 하나 뿐으로,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것이다. 상황은 저 아래 놔두고서 너희는 그 위로 날아다녀라.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무리 커다란 일도 아주 작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쉬운 방법은 천사이며 날아다니는 새가 되는 것이다. 쉬운 노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너희가 “내 성질, 내 산스카르, 내 굴레” 등으로 말할 때는, 너희가 산 채 죽었을 때 “나의 것”이라는 의식의 굴레를 끝내지 않았던 것이냐? 천사들의 언어는 “나의 것”이라는 언어가 아니다. 천사라 함은 “나의 것”이 전부 다 이제는 “당신의 것”이 되었다고 믿는 자라는 뜻이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은 너희를 이 세상의 주민으로 만드는 반면, “당신의 것”이라는 의식은 너희가 옥좌에 앉혀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천사가 된다 함은 “나의 것”이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이 영적인 삶에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이 “나의 것”일뿐, 다른 누구도 아니다. 너희는 이 정도로 천사가 되었느냐? 마하라시트라에서 온 자들은 무엇이 되려느냐? 너희는 천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지? 모든 문제를 푸는 한 가지

길은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남들도 날아다니는 새로 만드는 방법임을 항상 기억해라. 이해하느냐? 앓차.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천사의 모습을 가진 그런 영혼들에게, 사랑하면서 초연한 단계에 변함없이 머물며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카르마 요기이며 카르마티트가 되는 훈련을 함으로써 신체각각의 정복자가 된 자들에게, 한결같이 굴레에서 자유롭고 봉사에 묶인 상태로 지내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축복을 받는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 아비약트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1) 너희 자신을 이 세계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라 여기며 끊임없이 전진하느냐? 주연 배우는 매 발걸음마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칭송하여 노래 부르며 그것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청할 정도다. 주연 배우가 만일 한 번이라도 잘못된 동작을 한다면 그는 주인공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모두 2중의 주인공이다. 너희는 연기할 특별한 역할을 가진 주인공들이며, 또 너희의 삶을 다이아몬드 (히로)처럼 만드는 자들이기도 하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아존중을 경험하느냐? 아는 것과 아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그냥 아느냐, 아니면 알면서 그에 따라 행동도 역시 하느냐? 주인공의 역할을 보면서 변함없이 명랑하게 지내라. 와 드라마! 와 나의 배역! 만일 평범한 방식으로 단 하나의 행위만 행한다면 너희는 주인공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주인공 배우여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다 찬양되고 숭배된다. 마찬가지로 협조적인 영혼인 너희들이 주인공의 배역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행하는 모든 행동도 칭송될 가치와 숭배될 가치가 있게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한 도취감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이것을 잊느냐? 너희는 이것을 반 사이클 동안 잊는다. 너희는 여전히 그것을 잊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최소한 기억의 화신이 되어라! 일단 뭔가의 화신이 되면 너희는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다!

2) 너희의 삶을 고결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을 관리인이라 여길 때 너희는 너희의 삶을 고결하게 만든다. 관리인이란 사랑하면서 초연한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너희들 모두를 관리인으로 만들었다. 너희는 관리인들이 아니냐? 너희가 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가정을 가진 자라는 너희의 의식은 전부 자동적으로 끝난다. 너희를 고결한 삶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가정을 가진 자라는 의식이다. 관리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을 때는 너희가 자동적으로 애착의 정복자가 된다. 애착에서 한결같이 자유로이 머무는 것은 변함없이 고결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뜻이다. 애착을 가질 때는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애착의 정복자가 되어라.

3) 너희는 모든 행위를 카르마 요기로서 행하느냐? 너희의 카르마와 요가가 함께 유지되느냐?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서 행위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르마와 요가가 결합된 상태를 지속하느냐? 카르마를 행하는 동안 기억하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머물 때 카르마를 잊지 마라. 행동의 장으로 들어가면 기억을 잊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의 카르마와 요가가 분리되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두 가지는 결합되고, 칭호 자체가 카르마 요기다. 행위를 행하는 동안 기억하며 머무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랑하되 초연하며, 그들은 가벼울 것이고 그 어떤 행위에서도 무게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카르마 요기는 연꽃 같다고 일컬어진다. 이처럼 너희는 연꽃처럼 지내느냐? 너희는 그 어떤 유형의 쓰레기, 즉 마야의 어떤 파동에도 영향 받지 않겠지? 마야가 가끔 오느냐, 아니면 너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버렸느냐? 마야를 너희 곁에 앉히지는 않지? 마야를 너희와 함께 앉히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물려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마야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멀리서부터 그녀를 쫓아버려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으로 가득한 자는 마야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안다. 마야는 나약함을 통해서 태어난다. 너희에게 어떤 유형의 것이든 약함이 있으면 마야가 올 것이다. 여러 가지 질병의 세균들은 나약함에서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마야는 영혼의 약함을 통해서 태어난다. 너희가 약한 이유와 그 해결책은 나날의 멀리다. 멀리는 너희들의 신선한 음식, 너희에게 자양분을 주는 음식이다. 너희에게 어떤 힘 (비타민)이 필요한든 매일의 음식에는 그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자양분이 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는 자들은 약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이 음식을 매일 먹고 있지? 이 음식에 대해서는 단

식을 할 필요가 없다. 매일 그렇게 자양분 있는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너희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로 머물 것이다. 음식과 더불어 너희에게는 소화시키는 힘도 역시 필요하다. 귀담아듣는 힘만 있고, 되새기는 힘은 없다면 너희는 강해질 수 없다. 귀담아듣는 힘은 음식을 섭취한다는 뜻인 반면, 되새기는 힘은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뜻이다. 두 가지 힘을 다 가진 자들은 약할 수가 없다.

#### 가족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 모두 사랑하면서 초연한 단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겠지? 너희가 가족들과 사는 동안 육신의 친척들이나 세상의 분위기 또는 파동에 사로잡히게 되는 일은 없겠지? 너희는 신체적인 의식 너머에 머물며 너희의 관계들, 분위기, 파동을 영적으로 유지하느냐?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의식은 아무것도 없을 테지? 너희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평범한 가정이라고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이가 그 분위기를 봉사 센터의 분위기로 경험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만들었느냐? 거기에 가는 이는 누구나 그것을 세상의 분위기가 아닌, 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해라. 누구든 거기 가는 이는 그것을 예사로운 가정이 아닌, 사원으로 느끼게 해라. 이것은 순수한 가정을 가진 자들이 하는 봉사의 실질적인 결실이다. 너희의 집이 봉사의 장소이며 또 분위기도 봉사의 분위기이게 해라.

누군가 너희의 센터에서 자기 성질이나 산스카르에 영향 받아서 소란을 피우면, 모든 이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가 너희의 집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해라. 너희 가슴속에 거기서는 너희가 그런 행위를 행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게 해라. 너희의 센터에서 뭔가 옳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즉시 그것을 바로잡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세속의 장소와 너희 단계도 즉시 바로잡아라. 너희의 집이, 가정이 아닌 사원처럼 느껴지게 해라. 사원의 분위기가 모든 이를 끌어당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순수성의 향기가 너희 가정에서 풍겨 나오게 해라. 향 스틱의 향내가 온 사방으로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순수성의 향기가 멀리 또 넓게 퍼지게 해라. 순수한 가정이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앗차.

**축 복:** 지각에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었다 여김으로써 변함없이 태평하게 머물러라.

지각에 아버지에 대한 100%의 믿음을 가진 자녀들은 그들의 역할에서, 그리고 드라마의 모든 행위와 매 1초1초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둘 것이 보장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태평하게 머문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걱정의 선인 주름살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그 과제나 그 생각이 이미 달성되었다는 믿음을 한결같이 가진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는다.

**슬로건:** 뭔가를 듣거나 무슨 얘기를 전할 때 너희 느낌이나 의도가 변하면 그것이 분위기를 망친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